



보리수매 시작 21일 담양군 수북면 수북매입장에서 진행된 올해 첫 보리 수매에서 농민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원의 등급판정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날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광주·전남 283곳에서 2010년산 보리를 수매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 반토막

텅빈 공간... 하반기 인건비도 없다

복지지출 4배 늘고 교부세는 5분의 1
자체사업 엄두 못내...중앙 의존 심화

광주지역 자치구의 재정이 급속히 열악해진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세의 주축이 되고 있는 취득·등록세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별다른 재원이 없는 자치구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 여기에 구비를 충당해야하고, 각종 사업 예산도 증가하면서 '돈줄'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정자립도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자체사업을 할 여력이 없어 국·시비사업에 매달리고,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면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어디에 얼마가 부족하나=민선 5기 새 단체장이 취임하는 남구청과 광산구청을 찾은 인수팀 소속 위원들은 재정상태를 살펴본 뒤 깜짝 놀랐다. 당장 하반기부터 직원을 임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곳간'이 비어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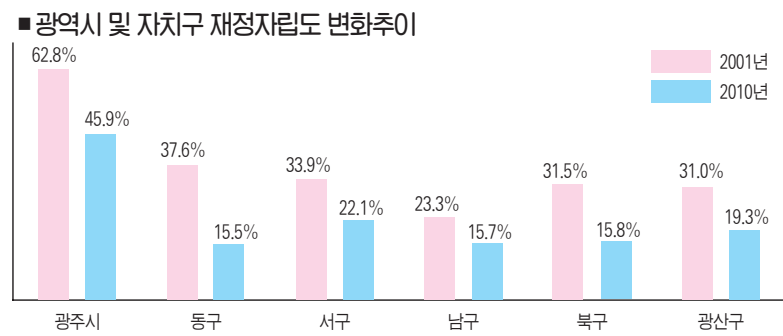
남구의 경우 인건비만 100억원, 사업비 100억원 등이 '구멍'났다. 광산구 역시 지난해 수완지구 입주주민들이 취득·등록세 수입 80억원이 줄어들면서 214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 북구청은 인건비 120억원, 사회복지

비 50억원, 사업비 30억원이, 서구청은 인건비 18억원, 사회복지비 50억원, 사업비 20억원, 동구청은 인건비·사회복지비 등 177억원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자치구가 아무리 예산 절감에 나서고 사업 축소를 하더라도 인건비나 사회복지비는 어떻게든 마련해 메워야한다는 점이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이 돈을 마련해야 하는지 감감할 뿐"이라며 "광주시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고, 그래도 안 되면 특별교부세를 일반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역시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광주시의 사회복지예산은 8215억원으로 지난 2002년에 비해 4배 이상이 증가했으나 사회복지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될 부동산교부세 보전액은 250억원(추정)으로, 지난 2008년의 1249억원의 20%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할 일은 지방자치단체에 남기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은 외면하는 중앙정부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 9년 만에 반토막=지



방자치제도가 본격 도입된 1995년 이후 15년이 지난지만 광주지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이 늘어날수록 하락, 자치단체가 사업을 벌여 그만큼 국·시비를 끌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반면 지자체의 재정수입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의 잣대가 되기도 한다. 이같은 양면성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매년 지출되는 경상비인 인건비나 사회복지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광주시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악화일로로 걷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1년 62.8%였으나 2010년 예산서 기준 45.9%까지 떨어졌다. 자치구는 더 심각하다. 동구는 지난 2001년 37.6%에서 2010년 15.5%, 서구는 33.9%에서 22.1%, 남구 23.3%에서 15.7%, 북구 31.5%에서 15.8%, 광산구는 31.0%에서 19.3%로 모두 절반 가

까이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 4개 자치구가 10%대에 머물고 있고 서구만 간신히 20%를 넘겼다. 자치구 예산 중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3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지역 불경기,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 등의 재정적 부담이 지방정부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못한 채 각 자치구들이 무리한 국·시비사업이나 자체사업에 나섰다라는 비판도 있다.

김기홍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현재의 중앙·지방 재정구조로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갈수록 중앙의 존이 심화돼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며 "자치구의 재정 악화는 이미 예견된 것으로 앞으로도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광태 광주시장
강운태 당선자
25일 회동 무산

박광태 광주시장과 강운태 당선자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회동을 취소했다.

강 당선자 측은 21일 "강 당선자의 일정 때문에 25일로 예정됐던 박 시장과 만찬 회동을 취소했다"며 "이달 말 또는 내달에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박 시장과 강 당선자의 만남은 강 당선자가 시 조직과 인사 쇄신을 강조하고, 박 시장이 추진해왔던 대형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하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특히 강 당선자가 "시와 산하기관이 일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직 인사들은 시장과 진퇴를 함께하는 것이 조직문화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사실상 '박광태 사람들'을 압박하는 상황 이어서, 박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됐다.

강 당선자는 이와 관련해 "박 시장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박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서로 원하고 일정한 맞다면 아무 때나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동채·고재유·이철원 남구 재보선 출마 선언

7·28 광주시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출마가 잇따르면서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은 2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선 국회의원과 문광부장관을 역임했던 경험을 토대로 민주당이 2012년 정권을 되찾는데 총력을 쏟는 한편, 광주와 남구발전에 큰 힘을 보태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정 전 장관은 "남구 주민의 수준 높은 정치의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사가 남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뒤 "낙후된 지역 개발과 문화복지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능력이 검증된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재유 전 광주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렴한 일꾼, 든든한 후보'라는 슬로건으로 "남구의 중흥시대를 열겠다"며 출마표를 던졌다. 그는 "남구 지역민들은 남구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청렴성이 검증된 참신한 인물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대중운동에서 태어나 지역발전에 헌신해온 자치행정전문가로 생산적 대안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임자"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이철원 전 광주시의원도 출마 선언을 통해 "남구 일원에 남도 해양관광박람회, 해양관광센터, 해양관광시장, 해양관광터미널 등이 들어서 남도해양관광타운 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5개 자치구 중 가장 못사는 남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광주경제 발전을 견인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국민으로부터 비난받는 정치인이 아닌 서민들과 교감을 갖고, 민주당이 2012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일조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문 전 국회의원과 이윤정 남구지역위원장, 정기남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이미 출마를 선언했고 임내현 전 광주교감장 등도 출마를 검토 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대식, 한나라 최고위원 출마

영광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21일 '호남 대표주자론'을 내세우며 한나라당 7·14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한나라당의 정권재창출, 국민대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과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전국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당 대표 후보로 출마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한나라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라고 전제, "누구도 책임지지 하지 않고 대통령과 청와대로 책임 돌리기에 급급하다"며 "개인적인 이득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은 요원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전남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서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던 김 전 처장은 "호남 유권자들은 한나라당이 지역과 이념의 낡은 정치구도를 타파하고 전국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지를 보내줬다"며 "이제는 한나라당이 호남에 사랑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세대·이념의 벽을 넘어 세계·미래·통합으로 나아가는 한나라당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제주도 여행! 내 차로 1시간 40분

이제 당일관광이 가능해졌습니다!

7월 2일! 전남장흥→제주성산 초쾌속카페리 '오렌지오' 취항!

이륙요금 31,000원

이착륙료 여객 564원, 화물 80대 선적

국립공원 44,000원

1시간 40분 주파

제주도

ORANGE

7월 2일 취항 기념!

주변 기쁨만만 곳!

천문산 도립공원, 덕유산 산림욕장, 목지 자연휴양림

독차밭, 서림계보정수목원, 용추폭포, 서해물산생기대공원, 소설태백산맥무대

거금도, 소록도, 팔영산도립공원, 나로우주센터, 고을만

굴당비린, 횡산도, 천도수목원

장흥출발: 오전 8:40/오후 3:15 | 제주출발: 오후 12:00/오후 6:30

장흥해운 예약문의 1577-5820 / 02-549-2580 | 수하여행, 테마여행 등 단체관광 상담